

## 히로시마 어필 2005

사람이 사람이 아니게 되어 믿기 어려운 것이 상식이 되어 버리는 전쟁. 그 극한이 이른 것이 히로시마이고 나가사키입니다.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전모가 밝혀졌을 때, 일본 YWCA 는 「반성해 그리스도자로서 후회하는 것이 많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로서의 의식이 우리 가운데에 명확하게 될 때까지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올 11 월, 일본 YWCA 는 100 주년을 맞이합니다. 오로지 평화를 요구해 걸어왔고, 평화 헌법을 지켜서 「핵」을 부정하는 입장이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직시 하면서, 아시아의 일원으로서 특히 동북 아시아의 이웃과 함께 평화와 신뢰의 길을 걷는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또, 세계 YWCA 의 결의에 따라, 중동 지역, 특히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의 자유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연대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호소하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세계에는 아직껏 많은 폭력의 연쇄에서 벗어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패전 후 60 년 지난 지금, 히로시마 땅에 서 있는 우리는 전쟁에서 희생 된 수 많은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나 증오, 분노를 넘어서 보복이 아니고 대화를 통해 우리의 눈을 뜨려고 하는 피폭자의 모습에 깊게 감동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서 손에 넣은 자랑할 수 있는 일본국 헌법. 이 평화헌법을 살리는 것은 전쟁을 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걸음을 멈추면 안 됩니다. 전쟁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의]라고 생각하는 [힘의 논리]로 만들어진 세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인 우리는 사람의 선량함을 믿고 평화의 전제가 되는 [인간존엄]이 언제나 어디서나 지켜지기 위해서 다음 사항을 결의합니다.

- 헌법개약의 위기에 직면하는 지금 헌법 9 조, 비폭력 사상에 서 있는 우리는 개약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겠습니다.

- 헌법제 24 조는 남녀평등과 인간존엄을 보장하는 것이며, 전쟁을 부정하는 9 조와 같이 일본의 재산입니다. 제 9 조는 정부가 행하는 [공적 폭력]을 부정하고 24 조는 가정 안에서 행해지는 [개인적 폭력]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평화속에서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제 24 조를 지키는 운동을 앞으로도 전개 하겠습니다.

- 동북 아시아에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비핵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각국 YWCA 와 함께 전쟁의 기억과 증언을 젊은 세대로 계승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합니다. 그리고 민중 사이에서 시민 연대를 강화시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힘을 다 하겠습니다.

-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점령하의 인권침해를 인식하는 것이 불가결합니다. 젊은이들의 교류를 통해 진실을 알고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올리브의 나무 캠페인에 협력합니다.

2005.8.21

일본 YWCA 100주년기념 국제평화 프로그램 히로시마를 생각하는 여행 참석자